광주매일신문

2012년 11월 14일 (수)
14면 스포츠

전남도체육회, 양정두·최미선 國體 남녀 MVP

전라남도체육회는 13일 제101차 운영이사회를 열고 제9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전남을 가장 빛낸 남·여 최우수선수와 팀을 선정해 발표했다.

수영 양정두(전남수영연맹)와 양궁 최미선(전남체고 1년)이 최우수선수로서의 영광을 차지했다. 순천공고 럭비팀과 나주시청 사이클팀은 최우수단체팀상을 수상했다. 양정두는 주종목인 접영50m에서 한국신기록 2개를 작성하며 금메달 2개(접영50m, 유형50m)와 은메달 1개(계영400m)를 수확하며 전남 수영계 대들보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최미선은 역대 국가대표 출신들로 구성된 광주·전남 태극회(회장 이순태)가 선정, 수여하는 태극회상의 주인공이 돼 '2관왕 수상'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

이들 수상자들은 19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개최되는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전남선수단 해단식에서 수상의 기쁨을 누린다.

/김기식 기자 pj21@kjdaily.com

11.0 X 8.1 cm

光州日報

2012년 11월 14일 (수)
02면 종합

전남도 시내면세점 유치 '빨간불'

적자 우려 신청업체 없어

전남도의 시내 면세점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3만원 이상 물건을 산 후 출국 때 부가세 등을 환급받는 사후 면세점은 호응이 크지만 자본금(10억원 이상)과 매장(330㎡),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하는 시내 면세점은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남도는 13일 "최근 22개 시·군과 대형마트, 농특산물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사후 면세점 신청을 받은 결과 목포 등 도시 대형마트 20여 곳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세청이 다음달 4일까지 직접 접수중인 시내 면세점 신청에는 아직까지 신청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 면세점은 기존 특산품 판매코너 등을 활용해 설치할 수 있지만 시내 면세점은 적자 등이 우려돼 선뜻 나서려는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또 전남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은 참여가 제한되고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 등은 신청할 수 없는 것도 주요 이유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1.3 X 9.3 cm

전남매일

2012년 11월 14일 (수)
12면 스포츠

양정두 최미선 체전 전남 MVP

순천공고·나주시청 최우수팀

양정두

최미선

수영 양정두(전남수영연맹)와 양궁 최미선(전남체고 1년)이 제9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전남을 가장 빛낸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순천공고 럭비팀과 나주시청 사이클팀은 최우수단체팀 영광을 안았다.

전라남도체육회는 13일 체육회 사무처장실에서 제101차 운영이사회를 개최, 최우수선수와 팀을 확정했다.

남자 최우수선수상의 영광을 안은 양정두는 제93회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2개(접영50m, 자유형50m)와 은메달 1개(계영400m)를 수확했다. 특히 접영50m와 자유형50m에서 각각 한국신기록을 작성하는 쾌거를 거뒀다.

최미선의 여자 MVP 등극도 만장일치에 가까웠다.

고교 1년에 불과한 '새내기 궁사' 최미선은 93체전에서 금 1개(50m), 은 1개(개인전), 동 1개(60m)를 각각 명중시켰다.

최미선은 역대 국가대표 출신들로 구성된 광주·전남 태극회(회장 이순태)가 선정하는 태극회상의 주인공이 돼 '2관왕 수상'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

순천공고는 지난해에 이어 2년연속 최우수팀으로 선정됐다. 92체전에서 아쉬운 준우승에 눈물을 흘렸던 순천공고는 최악의 대진운을 뚫고 지난 1996년 제77회 대회 이후 16년만에 전국 정상 등극에 성공, 전남에 무려 1,247점의 득점을 안겼다.

나주시청 사이클팀 역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직장팀을 대표해 최우수팀으로 선정됐다. 나주시청 사이클팀은 금 2, 은 1, 동 2개로 종합득점 616점을 따냈다.

사이클 2관왕(스프린트·경륜) 전남미용고 임사랑(2년)은 미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개최되는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전남선수단 해단식에서 열린다. /최진화 기자

10.7 X 18.0 cm

光州日報

2012년 11월 14일 (수)
14면 스포츠

수영 양정두·양궁 최미선 MVP

전남도체육회 선정

양정두

최미선

수영 양정두(전남수영연맹)와 양궁 최미선(전남체고 1년)이 전남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전남도체육회가 13일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실에서 제101차 운영인사회를 열고 양정두와 최미선을 남·여 최우수선수로 선정했다.

올 시즌 전남에 새둥지를 튼 양정두는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접영 50m·자유형 50m에서 한국신기록을 갈아치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계영 400m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했다.

고교 1학년인 최미선은 금 1(50m), 은 1(개인전), 동 1(60m)의 성적으로 여자 최우수 선수의 영예를 안았다. 최미선은 역대 국가대표 출신들로 구성된 광주·전남 태극회가 수여하는 태극회상의 주인공으로도 선정, '2관왕'이 됐다.

지난 대회 은메달의 아쉬움을 털고 16년만의 전국 정상 등극에 성공한 순천공고 럭비팀은2년 연속 최우수단체팀의 영예를 안았다.

금 2, 은 1, 동 2개를 수확한 나주시청 사이클팀도 2년 연속 직장팀을 대표해 최우수팀에 선정됐다. 국가대표 나아름은 이번 대회에서 금 2(도로독주·포인트레이스), 은 1(3km개인추발), 동 1(3km단체추발)의 성적을 기록하며 나주시청 팀의 질주를 이끌었다..

사이클의 임사랑(전남미용고)은 스프린트와 경륜에서 2관왕에 오르며 광주·전남체육회 출입기자단이 수여하는 '미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리는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전남선수단 해단식에서 진행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3.3 X 14.9 cm

무등일보

2012년 11월 14일 (수)
16면 스포츠

전남의 최우수선수로 뽑힌 양정두의 역영하는 모습.

'한국신 2개' 양정두, 남자 최우수선수상

여자MVP 양궁 최미선… 나주시청 사이클 최우수팀

전남도체육회 운영이사회

수영 양정두(전남수영연맹)와 양궁 최미선(전남체고 1년)이 제9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전남을 가장 빛낸 최우수선수로 뽑혔다.

전남도체육회는 13일 도체육회 사무처장실에서 제101차 운영이사회를 개최해 올해 전국체전 남여 최우수선수로 수영 양정두와 양궁 최미선을, 순천공고 럭비부와 나주시청 사이클부를 학교팀과 직장팀의 최우수팀으로 각각 확정했다.

또 최미선은 역대 국가대표 출신들로 구성된 광주 · 전남 태극회(회장 이순태)가 수여하는 태극회상의 주인공이 돼 '2관왕 수상'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

사이클 임사랑(전남미용고 2년)은 2관왕 가속 페달에 힘입어 '미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이들 수상자들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리는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전남선수단 해단식에서 수상의 기쁨을 누린다.

남자 최우수선수상의 영광을 안은 양정두는 올해 한국 수영계에 혜성처럼 나타난 대들보로 평가받고 있다.

2010년 경기체고 졸업 후 경기도체육회에 속해 있다 올해 전남으로 새로운 둥지를 튼 양정두는 제9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2개(접영 50m, 자유형50m)와 은메달 1개(계영 400m)를 수확하는 뚝심을 과시했다.

최미선의 여자 MVP 등극도 만장일치로 확정됐다.

고교 1년에 불과한 '새내기 궁사' 최미선은 이번 체전에서 금 1개(50m), 은 1개(개인전), 동 1개(60m)를 각각 명중시켰다.

특히 최미선은 50m에서는 대회신기록을 작성, '제2의 기보배'로 손색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체전에서 은메달을 딴 순천공고 럭비팀은 올해 경쟁팀들이 한 곳에 몰리는 최악의 대진운을 뚫고 지난 1996년 제77회 대회 이후 16년만에 전국 정상 등극에 성공했다.

순천공고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팀으로 선정됐다.

나주시청 사이클팀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직장팀을 대표해 최우수팀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양재환 사단'으로 통하는 나주시청 사이클팀은 금 2, 은 1, 동 2개로 종합득점 616점을 따냈다.

팀의 간판스타인 나아름이 금 2(도로독주, 포인트레이스), 은 1(3km개인추발), 동 1개(3km단체추발)로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사이클 임사랑은 금메달 2개(스프린트, 경륜)를 따내면서 미래상의 주인공이 됐다.

전승현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전남을 대표하는 주인공들에게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은 제9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당초 목표했던 종합11위 유지에 실패한 종합12위를 차지했다.

임정옥기자

17.0 X 23.9 cm

全南日報

2012년 11월 14일 (수)
17면 스포츠

수영 양정두·양궁 최미선, 전국체전 전남 MVP

전남도 체육회 선정

수영 양정두(21·전남수영연맹)와 양궁 최미선(전남체고 1년)이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전남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순천공고 럭비팀과 나주시청 사이클팀은 최우수팀으로 뽑혔다.

전남도체육회는 13일 도체육회 사무처장실에서 제101차 운영이사회를 개최, 남·여 최우수선수로 수영 양정두와 양궁 최미선을 선정했다.

순천공고 럭비부와 나주시청 사이클부는 학교팀 및 직장팀의 최우수팀상으로 각각 선정했다.

남자 최우수선수상을 받은 양정두는 올해 전남에 둥지를 틀었고, 제9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2개(접영50m·자유형50m)와 은메달 1개(계영400m)를 수확했다. 특히 접영50m와 자유형50m에서 한국신기록을 작성하며 최고의 기량을 뽐냈다. 접영 50m에 나선 양정두는 예선과 결선에서 2차례나 한국신기록을 작성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양정두

최미선

여고생 궁사 최미선은 이번 체전에서 금 1개(50m), 은 1개(개인전), 동 1개(60m)를 각각 명중시켰다. 특히 최미선은 50m에서 대회신기록을 작성, '제2의 기보배'로 손색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미선은 역대 국가대표 출신들로 구성된 광주·전남 태극회(회장 이순태)가 선정, 수여하는 태극회상까지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사이클 임사랑(전남미용고 2년)은 2관왕 가속 페달에 힘입어 광주·전남 체육회 출입기자단이 선정하는 '미래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고강인 기자 kiko@jnilbo.com

30.1 X 6.2 cm

南道日報

2012년 11월 14일 (수)
12면 스포츠

양정두

최미선

양정두·최미선 전국체전 전남 MVP로 선정

순천공고 럭비·나주시청 사이클 2년 연속 최우수팀상

최, 양궁 국대 3차 선발전서 4위…태릉 동계훈련 참가

수영 양정두(전남수영연맹)와 양궁 최미선(전남체고 1년)이 제9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전남을 가장 빛낸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전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승현)는 13일 사무처장실에서 제101차 운영이사회를 개최해 남·여 최우수선수로 양정두와 최미선을, 순천공고(교장 신경수) 럭비부와 나주시청 사이클부를 학교팀 및 직장팀의 최우수팀상으로 확정했다.

또한 최미선은 13일 경남 남해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2013년 국가대표 3차 선발전 마지막날 경기서 종합배점 53점으로 4위를 차지했다.

수 많은 강자들을 넘어선 최미선은 7위까지 주어지는 태릉선수촌 동계훈련의 참가자격을 얻어 내년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할 본격적인 국가대표 경쟁에 들어간다.

최미선은 역대 국가대표 출신들로 구성된 광주·전남 태극회(회장 이순태·개인사업)가 수여하는 태극회상의 주인공으로도 선정됐다.

2관왕을 차지한 사이클 임사랑(전남미용고 2년)은 광주·전남체육회 출입기자단이 결정하는 '미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이들 수상자들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개최되는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전남선수단 해단식에서 수상의 기쁨을 누린다.

남자 최우수선수상의 영광을 안은 양정두는 올해 한국 수영계에 혜성처럼 나타난 대들보로 평가받고 있다.

2010년 경기체고 졸업 후 경기도체육회에 속해 있다 올해 전남으로 새로운 둥지를 튼 양정두는 제9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2개(접영50m, 자유형50m)와 은메달 1개(계영400m)를 수확하는 뚝심을 과시했다.

특히 양정두는 접영50m와 자유형50m에서 각각 한국신기록을 작성하는 놀라운 기록을 선보였다.

고교 1년에 불과한 최미선은 올해 전국체전서 금메달 1개(50m)와 은메달 1개(개인전), 동메달 1개(60m)를 각각 명중시켰다.

최미선은 50m에서 대회신기록을 작성해 '제2의 기보배'로 손색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우수팀상을 받은 순천공고 럭비부는 지난해 전국체전서 아쉬웠던 은메달의 한을 이겨냈다. 올해 각종 대회에서 우승했던 경쟁팀들이 한 곳에 몰리는 최악의 대진운을 뚫고 지난 1996년 제77회 대회 이후 16년만에 전국 정상 등극에 성공하며 전남에 무려 1천247점의 득점을 안겼다. 순천공고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팀상의 영광을 안았다.

나주시청 사이클팀 역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직장팀을 대표해 최우수팀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양재환 사단'으로 통하는 나주시청 사이클팀은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종합득점 616점을 따냈다.

전승현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이 항상 고맙고 든든하다"며 "수상자 선정에 있어 최대한의 객관성을 보인 만큼 93체전에서 전남을 대표하는 주인공들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신광호 기자 sgh@namdonews.com

28.6 X 24.0 cm